

2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 1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 2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 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 4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 후렴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57.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 1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 2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 3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 4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 후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 담당

11/28(화)	11/29(수)	11/30(목)	12/1(금)	12/2(토)	12/4(월)
임찬섭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석철원 안수집사	이범우 안수집사	김봉철 안수집사	신 승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283장	.....	다	함	께
기 도	.....	.....	임찬섭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 예레미야 4:1~4	.....	인	도	자
찬 양	.....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새벽찬양대		
설 교	..... 『징계 속 은혜』	.....	임종희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257장	.....	다	함	께
축 도	.....	.....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1~4>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 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함께 살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11월 28일(화)

진노 중에도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면서도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며 사는 어리석은 이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징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안에 살면서 세상이 예수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겨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팬데믹 상황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교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부름받아 담대히 나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취업과 진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새문안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활짝 열리게 하시옵고 오랜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